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이 연 규

컬럼비아대학교 동양언어문화과 전임강사

최근 바람직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방안으로 실제적인 발화 상황에서 얼마나 언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언어 숙달도(proficiency) 중심의 접근 방법이 대두되면서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언어 숙달도 중심의 접근 방법은 언어 교육은 무엇보다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실제 발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제(task)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미와 기능을 중심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담화 차원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을 통합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어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면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 교육은 듣기 교육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언어생활에서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말하기 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대화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일수록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대화 상황을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

1. 말하기 교육의 목표

1) 초급/중급

1. 한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휘, 문형을 이용해서 짧은 대화로서 인사, 소개, 음식 등 일상적인 회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한국어의 발음(모음,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기초적인 음의 변화를 통해 한국어의 발음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3.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긴 문장의 대화를 할 수 있게 한다.

2) 고급

1. 저급과 중급에서 배운 기본 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수준이 높은 문법, 어휘를 익혀 고급 문장,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한다.
2. 일상 회화 뿐만 아니라 한국 속담, 속어, 의성어, 의태어, 고사성어 등을 학습해서 상황에 알맞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말하기 교육의 원칙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정확성과 유창성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
2. 듣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구성한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적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
3. 학습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학습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교사는 동기 부여를 통해 말하기를 격려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4. 발음 지도는 문맥에 초점을 두고 한다.
발음 지도는 개별적인 음에 치우치지 않고 ‘발음하는 방법’, ‘음을 대조해서 듣고 평가하기’, ‘문맥 속에서 연습하기’ 등을 통해 다양한 유의미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5. 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말하기 활동을 유도한다.
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능(function)’에 기본을 두고 ‘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의미의 전달과 이해에 초점을 둔 담화 차원의 말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말하기 교육이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제’ 중심의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3. 말하기 교육의 방법

① 대화형 (질문, 대답 형식) 연습지 사용

교사는 정확한 발음으로 학습자가 배운 문형, 어휘를 기억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학습자의 대답을 확인하고, 틀렸을 경우 바르게 고쳐 준다. 고쳐 줄 경우에는 말하는 도중에 끊지 말고 다 들은 후에 고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법 사항은 전체 연습을 통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화형 연습지를 써서 자기 짝하고 연습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사는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요즘 제2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중요시되는데, 한국말을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② 실제적인 자료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사용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급에서는 문형에 맞는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 활용하면 그만큼 학생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같은 사진이라고 해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제시하는 단어가 달라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의 사진을 구해서 이용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사진이나 도표는 현실성이 있는 실제적인 자료이고, 현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③ 상황 역할 (영화, 드라마 이용)

학습자들에게 맞는 적절한 상황을 주되,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배역을 각각 주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운 단어와 문형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자 2-3명이 짝을 지어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만든 후 실연한다. 이 때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여 준 후 배역을 정해 일정한 상황에서의 그 역할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며, 영화나 드라마를 일정 부분 까지 보여 준 후,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상상해서 배우의 역할을 해 보는 것도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학생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 표정, 억양 등 교실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단어 게임

배운 어휘를 복습할 목적으로, 교사가 간단하게 어휘를 설명한 후 학습자가 그 어휘를 맞추기도 하고, 학습자들끼리 설명하고 맞추게 하기도 한다.

⑤ 자유 회화

자유 회화 시간은 지금까지 배운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유 회화 시간에는 발표자가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발표자가 사회자를 맡아 그 시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저급에서는 학생들의 숙련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자유회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지휘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⑥ 토론회

학생들이 정한 주제로, 사회자를 정해 토론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골고루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에 토론회 준비는 미리 해야 효과가 크며,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몇 명 학생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⑦ 인터뷰 발표

- 학습자 자신이 주제를 선택 (단, 주제 선택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 선택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문을 만들어 조사해 오게 한다.
- 조사 대상자는 가능한 한 많을수록 좋으며,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다양하게 한다.
- 조사 대상자 중 몇 명의 내용을 녹음해 오게 한다.
- 조사자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
- 조사자는 설문 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나머지 학습자에게 준다. 요약지에는 주제의 선택 동기, 조사 대상자의 인원수 및 분포도, 설문 내용, 조사 결과(결론)를 쓰게 한다.

4. 과제를 통한 효과적인 말하기 수업 구성

말하기 활동의 최종 목표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실생활에서 정확하고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과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과제 수행 중심의 말하기 수업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된다.

① 도입(Warm up) → ② 제시(Presentation) → ③ 연습(Practice)
→ ④ 활용(Use) / 과제(Task) 수행 → ⑤ 마무리(Follow up)

다음 대화를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리아: 엄마,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 너 둘 때 찍은 사진이야.
마리아: 와, 상 위에 1)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머니: 응, 연필, 돈 같은 것을 올려 놓고 아기가 뭘 잡는지 보는 거야.
마리아: 제가 손에 들2)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머니: 그건 실이야. 아이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산대.
마리아: 카를도 실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니야, 카를은 실3)이 아니라 연필을 잡았단다.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한대.
마리아: 어, 이상하다. 카를은 공부를 싫어하는데.....

출처: <한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교육진흥원 5권 12과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p. 136

제 1단계 (도입)

이 대화를 연습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에게 이 대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오늘 배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대화에 있는 어휘나 문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리게 답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학생들을 대화 분위기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도 학습 목표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진을 준비해서 활용(둘 사진, 환갑 사진 등)하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2단계 (제시)

이 단계는 문법(문형)을 설명하는 단계로, 한국어의 경우 다양한 어미 변화, 불규칙 용언 등 복잡한 문법 사항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초급 단계에서부터 문법을 정확하게 익히지 않으면 점점 급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계속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단어를 제시할 때는 단어 뜻을 그대로 영어로 말해주는 것보다 적절한 예문을 통해서 단어의 뜻과 정확한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나 형용사를 제시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용언과 같이 쓰이는 조사(예: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함께 주는 것이 좋다. 단어의 확장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보기 대화에 나타난 2)의 문형을 제시할 때는 “-고 있다.”와 같이 써서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어떤 경우에 이 문형이 쓰이는가를 예문을 통해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 설명해 주면 매우 효과적이다. 문형 3)의 경우에도 “-이/가 아니라”와 같이 제시하고 예문을 통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화 읽기, 외우기와 아울러 정확한 발음 연습도 아울러 해야 한다.

제 3단계 (연습)

연습 단계는 제시 단계에서 설명한 규칙을 반복 연습을 통해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문형 연습에는 교체 연습, 응답 연습, 연결 연습, 상황 연습, 변형 연습, 확장 연습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계적인 단순 암기는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무시한 것이라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가 낮은 학생들한테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 단계의 연습이 매우 효과적이다.

응답 연습을 끝낸 후에는 서로 짝을 지어 연습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이 올라갈수록 상황 연습에서 문형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고급 수준에서까지 기계적인 반복 연습을 할 경우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 문법을 스스로 이해했다는 성취감도 학생 자신이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제 4단계 (활용 단계)

활용 단계는 제시와 연습 단계에서 익힌 여러 가지 문법이나 표현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과제란 학생들이 일정한 학습 환경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인데,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배운 문형이나 단어를 이용하여 대화를 만들어 봄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사가 이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줄 때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과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교실을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로 꾸며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게 연습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각각 완성한 대화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실연함으로써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므로 학습자에게 다양하면서도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에 제시된 대화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① 각자 자기의 둘 사진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게 한다. 학생들이 사진을 가지고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시키는 것이 좋다. 이 때 한 학생이 그 사진을 보고 물어보면 사진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것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묻는 것보다 학생 서로가 자기의 스키마를 동원하여 묻고 대답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고 있다”의 연습의 일환으로 학습자가 돌아가면서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 상태나 외모 상태, 교실에 있는 학습자의 복장 상태나 외모를 묘사하게 한다. 이 연습을 위해 모자, 장갑, 안경, 목도리, 시계 등의 소품을 준비하면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다.

③ 한국과 미국의 생일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서 발표하게 한다.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지휘자(conductor)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활용 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모니터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 5단계 (마무리)

5. 결론

언어 교육에서 최상의 방법론이란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제공하는 장점을 취합해서 최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말하기 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는 효과적인 말하기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최상의 교수법이란 변화하는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교사는 상황에 알맞은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남성우 외(2006), 《언어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민현식 외(2005), 《한국어 교육론》1,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문화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강현화(2006),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연구》 1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정숙(2001), 〈외국어 환경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 방안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제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박동호(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내용 구축 방안〉, 《이중언어학》 34호,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2005), 〈한국어 문법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백봉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 《한국어 교육》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성기철(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어교육》107, 한국어교육학회
- 손호민(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 이병규(2008), 〈국어과의 문법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징 비교 연구〉, 《이중언어학》 38호, 이중언어학회
- 이혜영(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112, 한국어교육학회
- 지현숙(2007),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을 위한 과제 기반 교수법〉 《국어교육연구》 2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최정순(2006), 〈한국어 교육 방법론의 재검토-의사소통적 한국어 구어 능력 개발을 위한 제언〉, 《국어교육연구》 1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